

2011.01.04 미래정책연구실

□ 남미지역, 기상악화로 옥수수 가격 급등

1. FinancialTimes(2010.12.23) 주요 내용

○ 최근 브라질, 아르헨티나 등 남미지역의 강수량 부족으로 옥수수 가격이 연초대비 48%까지 치솟아 상인들이 우려를 나타냄.

※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각각 세계 2위, 3위의 곡물 수출국이며 이들 국가는 전 세계 곡물 교역량의 25% 차지

- 특히, 아르헨티나의 피해가 다른 국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,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, 곡물 수분 발달과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.

○ 시카고 선물거래시장의 내년 3월 인도분 옥수수 가격은 부셸당 6.14달러로 지난 2008년 7월(7.65달러/부셸) 이후 최고치를 나타냄.

- 가격분석가인 Stephanie Aymes는 현재의 기상악화가 지속될 경우, 향후 옥수수 가격이 부셸당 6.50~6.62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.

○ 남미지역의 건조한 날씨는 라니나(La Nina) 현상에 기인

※ 라니나는 동태평양에서 평년보다 0.5도 낮은 저수온 현상이 5개월 이상 일어나는 이상해류현상임.

- 이 현상이 발생하면 농업 지대 주변의 강우와 온도 패턴이 변할 수 있으며, 아르헨티나, 페루 등 남아메리카에는 가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.

○ 호주의 기상감시 관리국은 최근 발생한 라니나는 20년전에 발생한 비슷한 현상보다 더 강한 것이라고 발표함.

- 현재 열대 태평양 부근에 걸쳐 퍼져있는 라니나는 점진적으로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이나, 내년 1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

○ USDA에 따르면, 2010-11년 아르헨티나 옥수수 생산량은 약 2,500만 톤으로 전망됨. 한편, 아르헨티나 옥수수 생산량이 2,100만 톤보다 낮을 것이라는 일부 분석가들의 견해도 있음.

-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재고량이 내년 중반에 지난 15년간 최저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함.

○ 한편, 최근 기상악화로 콩 가격도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냄.

- 시카고 선물거래시장 1월 인도분 콩 가격은 부셸당 13.49달러로 지난 2008년 7월(16.63달러/부셸)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냄.

자료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